

고병원성 AI가 발생 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지난 2003년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AI 파동을 겪었지만 이번 발생은 가금 관련 산업 전체를 유난히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초기부터 차단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의심 전수가 신고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월말 현재 총 80건의 고병원성 AI 의심 축이 신고되어 이중 40건이 HPAI(H5N1)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매몰 처분된 숫자도 5백50만수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52개의 이동통제 초소가 설치되고 방역활동 및 매몰작업에 나섰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지자체 공무원이 속출하는 등 이제는 가축질병이 사람을 골병들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금업계가 그토록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실 2008년 이후 2년여 간 발생이 없었던 고병원성 AI가 2010~11년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왔던 사안이었다.

저병원성 AI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고 주변국들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항상 경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왔다. 정책당국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예찰 활동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예찰이라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육농가 스스로 철저한 소독을 통해 차단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 철새 도래지 등에서 회수된 샘플이나 분변, 조류 폐사체 등에서 잇달아 HPAI(H5N1)가 검출되고 있다. 전국을 날아다니는 야생조류의 상당수가 이미 HPAI에 감염됐다는 증거다.

이제 안전지대는 없다. 야생조류의 농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주가 철저한 소독을 통해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자신의 농장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등 관련 산업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다른 해와는 달리 닭고기 소비 및 가격은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에 걸친 학습효과에 따른 것인지 구제역 여파에 밀려 마스크의 영향은 덜 받아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병원성 AI에 따른 피해는 여기까

지이다.

이미 입식 및 출하 지연에 따른 농가 및 육계 계열주체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기하급수(幾何級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상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설 연휴가 끼어있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식 제한에 따른 저항이 미미하지만 HPAI의 추가발생이 나타나고 입식제한시기가 장기화될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의 미야자키현에서 HPAI의 발생이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이 지역의 철새가 올 4월까지 우리나라도 유입될 전망이다. 또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지난 1월말부터 HPAI 의심축의 신고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모두들 직접 느껴서 아는 일이겠지만 온 나라 전체가 구제역, HP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축산업의 존재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번 사태의 후 폭풍은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업계가 어떻게 살아남는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자. 